

# 2009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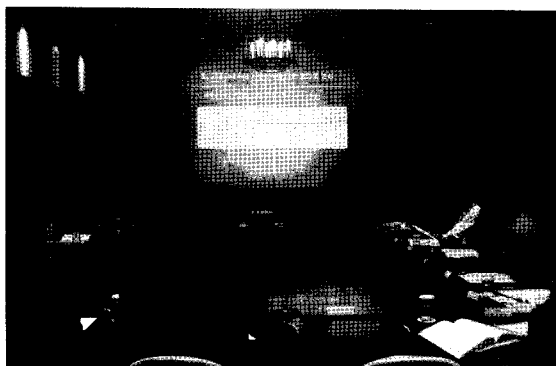
김정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09년 7월 1일(수)~7월 3일(금)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2009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2일째 오후 세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대학총장 중심의 7개 특별위원회별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토의결과에 대한 종합발표도 함께 이어졌다. 여기서는 특별위원회 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 1. 특별위원회별 분과회의

특별위원회	좌장	발표	토론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	노동일 위원장 (경북대 총장)	허종렬 자문교수(서울교대) • 고등교육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의 논의 동향	강창석 위원(동의대 총장) 김윤수 위원(전남대 총장)
대학재정 대책위원회	임병선 위원장 (목포대 총장)	송기창 자문교수(숙명여대) •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의 과제	박영식 위원(가톨릭대 총장) 전우수 위원(공주교대 총장)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고려대 총장)	정용상 자문교수(동국대) •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장재욱 자문교수(중앙대) •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제	최세훈 부장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함정민 변호사(서울변협 홍보이사)
국공립대학 발전위원회	서거석 위원장 (전북대 총장)	반상진 자문교수(전북대) • 국공립대학 주요정책 쟁점사항 진단과 과제	자유토론
사학법 대책위원회	문성모 위원 (서울장신대 총장)	이시우 자문교수(서울여대) • 사립학교법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및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최성해 위원(동양대 총장) 채용관 위원(영동대 총장)
대학평가 대책위원회	이현청 위원장 (상명대 총장)	배호순 자문교수(서울여대) •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인증	송광용 위원(서울교대 총장) 이용두 위원(대구대 총장)
국제화 대책위원회	박동순 위원장 (동서대 총장)	권선국 자문교수(경북대) • ACE, UMAP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학 국제화 방안	정순훈 위원(배재대 총장) 장만채 위원(순천대 총장)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동 위원회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소개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의 의무화, 대학운영에서의 구체적인 자율성 보장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후 국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 대학등록금에 관한 주무장관의 조정권, 동일대학의 다른 학과 편입 허용 등 관련 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학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적용받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실체를 확인하는 사례 중심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최종 법안을 마련하며 이를 당초 계획대로 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부, 국회 등과의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대학재정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재원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고등교육재정의 세입이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고등교육재정의 과제로는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 확충, 대학등록금 의존도 하향 조정, 국립대학 재정운용 효율화, 그리고 사립대학재정 확충 등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결국, 고등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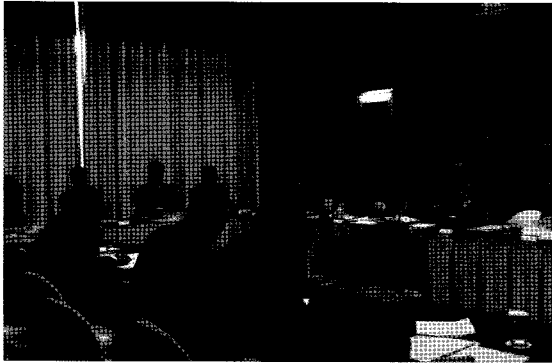
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원, 연구비, 교육 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 즉 고등교육재원의 영세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총정원 통제를 풀어야 하고, 제도의 본질인 자율과 경쟁, 그리고 철저한 평가에 따른 진입과 퇴출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진입을 허용하고 과소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 적정 정원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선정기준을 설계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된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 역시 과도한 정부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이 로스쿨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순기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1) 로스쿨의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한 변호사 시험이 되어야 하고, 특히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률 등에 있어서는 실무능력배양, 특성화, 국제화 등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2) 다양한 실무연수 경험, 국제기구활동 경험, 특성화 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3) 변호사 시험에 의한 점수가 아닌 로스쿨 학생의 특성화·전문화 정도나 연수·봉사경력과 같은



지표에 의해 진로·취업이 정해지도록 유도하며 4) 그 밖에도 법조직역 확장을 위한 관·학·법조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는 현재 국공립대학 개혁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임해규 의원입법)이며, 국립대 법인화 문제의 핵심은 국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학개혁 전략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운영 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로부터 재정 확보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대학 간 구조개혁의 자율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공립대학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국공립대학의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립대 구성원이 합의에 의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의 자율화, 규제

완화, 책무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 개선방향으로 1안은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2안은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3안은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으로의 편제라고 밝혔다. 1안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2안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을 통한 사립대학에의 재정지원은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3안은 법체계적 장점은 있으나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결정 및 현행 사립학교법과 연계된 30여 개에 달하는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으로 사학의 자유 보장, 개방이사제 위헌성 해소, 대학평의회 회제도 문제점 해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도 개선 등을 제시·논의하였다.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시-자체평가-제3자 외부평가’라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도입으로 대학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인증평가 주관기관으로서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대학평가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로 1) 대학평가인증의 방법을 정보공시 및 자체평가와의 연계 강화 등 선진화, 효율화 도모 2)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제고 3) 대학의 특성과 함께 국제수준 평가준거 개발 4)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5)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학별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6) 대학평가의 국제상호인증 적극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7) 국제수준의 평가기관으로서 대교협의 위상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고 의견을 모았다.

□국제화대책위원회는 대교협과 ACE 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한·미 고등교육 교류 촉진, 한·미 총장 포럼의 정례화, 대학운영 및 협의회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고, 한국대학의 UMAP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UMAP 거버넌스에 대교협 참여 UMAP 프로그램 안내, UCTS 참여와 상충되는 법령 및 대학규정 정비, 기존에 교류가 적은 지역과의 교류 장려, UMAP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요청 검토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학 국제화 방안으로 1) UCTS 학점교환 방식을 대학생들이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2) 대학 간 교육과정 인력풀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3) 학생과 교수의 국제 경험이 대학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학생 해외 인턴십, 교수교류의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4) 외국 대학의 벤치마킹 효과를 개별 대학에 적합한 모형으로 변형·적용하는 후속 노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의 특별위원회 별 분과회의를 통해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비롯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7개 특별위원회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사안별로 법안을 준비함으로써 대학자율화 정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며,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평가 방안 모색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현안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회원대학 총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 현안과제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각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안 사항 중 위원회별 주요 쟁점과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